

제 목	관해유도 항암요법을 받는 백혈병 환자에서 예방적 항진균제 투여의 효과 -fluconazole 과 nystatin의 비교-
연구자	최강원 ^o , 백경란, 오명돈, 박선양, 김병국
소 속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내 용	<p>목적: 호중구 감소증 환자의 전신성 진균 감염증은 진단이 어렵고, 치료가 늦어지면 치명적이므로, 항진균제를 예방적으로 투여하여 이들 환자의 예후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이 연구의 목적은 관해유도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항진균제인 fluconazole과 nystatin을 예방적으로 사용하여 이 두 약제의 안전성과 예방효과를 비교하는 것이다.</p> <p>방법: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격리 병실에 입원하여 관해유도 항암요법을 받는 급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맹검법으로 fluconazole과 nystatin을 대상환자에게 투여하고, 감시배양으로 구강, 소변, 대변의 진균도말과 배양 검사를 실시하여 colonization상태를 투약전과 비교하였다. 예방효과는 (1)조직검사나 배양으로 전신 진균감염증이 증명된 경우, (2) 식도 조영술이나 식도 내시경검사로 식도의 병변이 확인되고 배양으로 칸디다가 증명된 칸디다 식도염, (3) 달리 설명할 수 없는 구강내 병변이 있으면서 도말과 배양에서 칸디다가 증명된 구인두 칸디다증, (4) 광범위 항균제를 투여해도 38도의 열이 계속되어 경험적 항진균제를 시작한 경우중 한가지가 있으면 실패로 정하였다. 부작용은 증상과 일 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BUN, creatinin을 추적하여 조사하였다.</p> <p>결과및 고찰: 대상환자는 모두 23명이었으며, 이중 12명은 fluconazole을, 11명은 nystatin을 투여받았다. 두 군사이에 연령, 남녀비, 기저질환, 진균감염의 위험요소는 차이가 없었다. 투약기간은 fluconazole군(F)이 24일, nystatin군(N)이 23일이였다. 중도탈락은 3례로 F중 MRSA패혈증 1례, N중 오심, 구토1례와 Stevens-Johnson증후군 1례였다. 평가가능한 20례중, F 11례중 8례와, N 9례중 4례에서 진균감염증의 예방에 성공하였고, F 3례와 N 5례는 실패하였다. 실패한 F 3례는 코의 피부조직에서 aspergillus가 증명된 1례와 경험적으로 amphotericin을 투여한 2례였고, N 5례는혈액배양에서 Candida tropicalis가 분리된 1례와 경험적 amphotericin을 받은 4례였다. 진균의 colonization은 F중 3균주는 치료중 소실되었으나, 2례는 증가하였다. N은 1균주가 소실된 반면, 3례는 증가하였다. Colonization이 증가한 F 2례는 C. albicans와 Trichosporon beigelli가 대변에서 분리된 경우이고, N 3례는 대변에서 C. albicans가 분리된 1례, 구강에서 aspergillus가 분리된 1례, 혈액배양에서 C. tropicalis가 분리된 1례였다. 부작용은 오심 구토가 F중 1례, N중 2례였으며, 이중 N의 1례는 증상이 심하여 투약을 중지하였다. 간기능 검사상 SGOT/SGPT의 상승은 F 12중 3례, N 11중 2례에서 관찰되었으나, 두 군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p>결론: 관해유도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백혈병 환자에게 진균감염증을 예방할 목적으로 항진균제인 fluconazole을 투여하여 그 효과및 안전성을 이중 맹검법으로 nystatin과 비교하였다. Fluconazole의 진균감염예방 효과는 nystatin과 견주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비교적 안전하였다.</p>